

유성진 회장 '안전저널' 과 인터뷰

8 2011년 3월 30일

특 집

한민일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유성진 회장

책임을 아는 건설현장 만들 것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유성진 회장은 3월 17일 '안전저널' 연설기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회장 취임에 따른 소감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망라되어 있어 이에 인터뷰 전면을 게재합니다. (사진제공: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Q. 회장님, 새 학년 건설현장 만들 것인데 어떤 점을 중시할 계획이신지요?

A. 유성진 회장: 새 학년 건설현장 만들 것인데 어떤 점을 중시할 계획이신지요? 유성진 회장은 3월 17일 '안전저널' 연설기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회장 취임에 따른 소감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망라되어 있어 이에 인터뷰 전면을 게재합니다. (사진제공: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유성진 회장

건설안전기술사, 의무적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보다 강화될 필요 있어

Q. 건설안전기술사, 의무적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보다 강화될 필요 있어

A. 유성진 회장: 건설안전기술사, 의무적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보다 강화될 필요 있어



유성진 회장

Q. 건설안전기술사, 의무적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보다 강화될 필요 있어

A. 유성진 회장: 건설안전기술사, 의무적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보다 강화될 필요 있어

다. 문제는 이런 점을 감안, 정부와 각종 건설안전유관기관, 건설업계 등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고인 물과 같은 건설안전분야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2월말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제8대 회장에 선출된 유성진 신임 회장이다.

유 신임 회장을 만나 협회 운영 계획과 건설재해 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회장님 및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1985년 설립된 이래 인간 존중을 최우선 이념으로 하여 건설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건설안전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비롯해 건축물 구조 및 재해진단, 교량·터널 등의 안전진단, 재건축과 리모델링 진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교육과 공동주택거래 검증, 법원감정서 대응보고서 업무 등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등에서 공직자로 근무를 한 바 있으며 그간 쌍용엔지니어링 이사, 도우엔지니어링 사장, 동남이엔씨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다져진 능력을 협회원님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에 최근 제8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Q 신임 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향후 협회를 이끌어 갈에 있어 역점을 두실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이미 국내를 넘어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건설시장 개방 압력이 본격화 될 것이고, 지금

부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준비의 핵심이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요소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중요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요소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그 수준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건설현장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토를 배제시키고, 최고의 선진화된 기술력이 곧 안전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트릴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우리 협회가 건설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기에 있어 흔들림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한 윤리경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입니다.

Q 공학박사를 필두로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도로 및 공항 기술사 등 유수의 자격을 보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신념이 남다른 것으로 보이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양보'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양보가 있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양보'이지만, 딱 한 가지 양보를 했을 때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안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에는 절대 양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부터 먼저 해야 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안전인 것입니다.

제 안전에 대한 신념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안전에 미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이기적이어야 하며, 때론 고집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하기에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안전입니다.

Q 건설업에서 재해가 빈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저널 연설기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유성진 회장

니까?

- 건설업의 특성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재해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특성을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외부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요인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진척에 따라 근무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규칙적인 틀로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구조가 일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내국인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으로 인해 언어소통 등이 원활치 않은 동남아시아 및 재개발 국가의 인력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Q 그럼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발주청의 안전관리 조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일부 발주청의 경우는 안전관리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선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아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건설공사의 단계별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계단계, 공사착수 전 단계, 공사단계 등 각 진행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펼쳐져야 복잡다양한

건설 현장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다수 현장들이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저 세운 계획을 이수하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진정 단계별 안전관리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끊임없는 관찰과 고민을 통해 당시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관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건설안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추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앞서 언급한 발주자가 참여하는 안전 관리체계가 활성화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에 발주자가 참여를 하게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당연히 사전안 전성 검토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안전인의 목소리와 입지도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도 건설업 안전관리체계구축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조사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건설안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를 의무적으로 상주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Q 향후 정부의 건설안전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 최근 정부의 기조는 기존 규제중심에서 자율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안전관리에 대한 각 현장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문화가 현장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업계가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식개혁을 위해 조기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기술적인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안전의식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유럽 등의 선진국처럼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만의 특성화된 안전 기술이나 기법의 연구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알레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건설안전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IT기술과 건설안전의 융합을 통해 독자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수준에 올라선다면 우리나라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국내 안전인들과 전국 근로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 모든 산업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초대화화, 초고층화, 최첨단화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사회적인 변수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신공법이 끊임없이 개발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용 시간도 점차 빨라지고 있어 사고발생의 요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또한 이런 급변하는 현장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규와 기준을 망라해 산재개발업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제도와 교육을 실시해도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인 여러분, 안전을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꼭 실천으로 옮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만 명량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이뤄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회장이 · 취임식 개최



• 취임인사를 하고 있는 신임 유성진 회장

협회 제8대 회장이 · 취임식이 지난 3월 10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임 한경보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유성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20여년 전통의 협회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

할 것임을 밝히고 향후 임기 동안 그간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협회 건설에 모두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경

보 전임회장을 비롯해 권오석, 최재천 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안무영 신임 부회장의 취임인사도 있었다.

석면안전 홍보관 개관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여온 석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석면의 유해성과 일터에서의 올바른 취급방법 등 일반국민과 근로자가 손쉽게 석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석면안전홍보관’을 오픈한다. ‘사이버 석면안전홍보관’은 공단이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소재 공단 본부에 국내 최초로 개관한 ‘석면안전홍보관’을 온라인 상에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석면안전안전홍보관’을 선택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이용해 홍보관을 체험할 수 있다.

홍보관 내부 시설물과 영상물 등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컴퓨터 마우스를 활용한 360도 이동이 가능해 현장에서 관람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한다. 또한, 석면이 어떤 물질인지, 석면함유 물질의 종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미경 관찰, 석면 퀴즈 등의 코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법 등 안전한 작업방법도 알려준다.

유성진 회장 시사매거진과 특별 인터뷰

협회 업무 활성화 및 위상제고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 유성진 회장은 지난 4월 시사매거진김정현 차장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 취임과 일본 대지진 관련 특별 인터뷰

를 가졌습니다. 이에 시사매거진 5월호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 전면을 게재합니다.

국내 대지진계 종합점검 / 해결을 찾다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유성진 회장

“매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초대형 지진을 아십니까”

국내 최고 인재(人才)들과 함께 인재(人災)에 맞서는 이사람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 세계가 경악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복구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간 일본이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매뉴얼의 왕국으로 불렸던 터라 그 충격은 더했다. 하지만 아리나란 점은 규모 9.0의 천재지변 후 이어진 일련의 인재(人災)들은 그들이 자랑했던 매뉴얼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뉴얼은 너무나 견고했으나 정작 그것을 컨트롤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人才) 즉 사람의 판단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그러면 살비나 기술보다도 오직 사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매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초대형 지진’

“사고 대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애초부터 대처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3월7일 공식 취임한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 유성진 회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취임 직후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 탓에 눈 코 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국내 건축물의 지진 대비 현황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탓이다. 한편 협회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건설재해예방 관련 연구 및 현장 활동도 부쩍 분주해졌다.

협회는 1985년 설립된 이래 인간중중 이념을 바탕으로 건설재해예방에 앞장 서 온 국가대표적의 건설안전전문기관이다. 협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 건설재해예방에 관한 기술 지도를 비롯해 건축물의 구조 및 재해 진단, 교량·터널 등의 안전진단, 재건축과 리모델링 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활동범위는 사실상 건설안전 전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 대지진으로 큰 희생자가 발생한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안전지대라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걸



지난 3월7일 공식 취임한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유성진 회장은 취임 직후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 탓에 눈 코 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아시는지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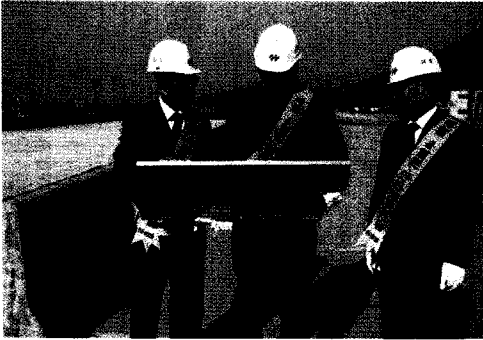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9만8,645명이 재해를 입었다. 이 중에서 사망자만도 2,200명에 달한다. 매년 초대형 지진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었더라면 상당수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유 회장이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한탄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아직도 일부 발주청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지요.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아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유 회장은 발주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 당연히 사전 안전성 검토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절감이나 효율적 건설분야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협회는 지난 몇 년에 걸쳐 건설업안전관리체계구



세심한 정책과 사업은 협회의 월등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기획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22년 간 대형건축물과 대형사고 등을 진단하며 쌓아온 노하우는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다.



20여 년을 훌쩍 넘어선 국내 최고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수장에 올라선 유성진 회장 그는 임기 내에 대한민국 건설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의 하루하루는 고스란히 공적인 고민들과 분주함으로 채워지고 있다.

축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조사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건설안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유 회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지진대비 분야 역시 그 출발점은 안전진단이어야 합니다. 내진대비를 갖춘 건축물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무작정 내진설계 기준만 강화한다면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니까요."

이와 함께 유 회장은 내진설계 등급제를 제시했다. 정보통신등급제도와 같이 내진설계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내진설계라는 요소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비상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건축물의 비상 대피로를 외부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캠페인이다.

이렇듯 세심한 정책과 사업은 협회의 월등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기획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22년 간 대형건축물과 대형사고 등을 진단하며 쌓아온 노하우는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과 신속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사람입니다.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풍부한 기술인력은 국내 최고임을 자부하기 때문이지요." 유 회장 역시 건설 학의 명문으로 알려진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수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파와 건설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물론이고 토목시공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현장전문가로도 탁월한 역량을 갖춘 한편 서울시청 등 공직을 비롯해 쌍용엔지니어링 이사, 도우엔지니어링 사장, 동남이앤씨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사직을 두루 망라한 학문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건설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전성기'를 위하여

20여 년을 훌쩍 넘어선 역사를 지닌 국내 최고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수장에 올라선 유성진 회장. 그는 기쁨보다는 어깨를 짓누르는 사명감에 숨이 가쁘다며 손사래를 쳐 보였다. 임기 내에 대한민국 건설안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의 하루하루는 고스란히 공적인 고민들과 분주함으로 채워지고 있다.

"협회의 전성기를 열 수 있도록 전력 집중할 것을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 회장이 말하는 '전성기'는 비단 협회라는 한 기관의 활성화나 발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매년 발생하는 어이없는 인재(人災)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전성기는 국내 건설안전 분야의 전성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

취재 김정현 차장

협회 제22회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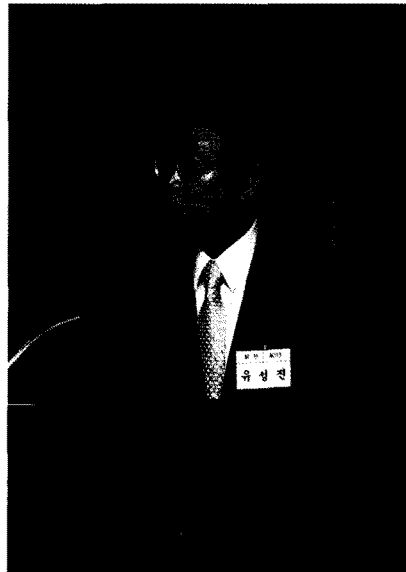


• 제22회 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하고 있는 한경보 전임회장

협회는 제22회 정기총회를 지난 2월25일 개최하고 결산 보고 및 제8회 회장단 선거를 실시하였다. 건설공제조합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는 제21회 정기총회 초록 접수에 이어 2010년 주요업무 현황보고와 감사보고 등 각종보고에 이어 2010년 일반회계 및 회원회계 결산 승인과 2011년 일반회계 및 회원회계 예산 승인, 제8대 임원선출의 건의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제8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유성진
- 상근부회장: 안무영
- 비상근부회장: 유길환, 장효성
- 감사: 김연호, 김종효



•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유성진 제8대 회장

유성진 회장 (주)삼호 도로공사현장 방문



• 유성진 회장은 4월5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특별지도를 위해 (주)삼호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유성진 회장은 4월5일 (주)삼호 방산-하중간 도로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진행 현황 등을 둘러보고 해빙기 안전사항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였다. 특히 이날 유성진 회장은 현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도 참가해 삼호 임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의 날 행사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주)삼호의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과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의 6.08km의 국도 신설공사다. 공사가 완공되면 국도의 고유기능인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와 교통소통 원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의 균형발전,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효과를 획기적으로 거둘 대형공사로 지난 2002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등 난공사임에도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 (주) 삼호 현장 브리핑을 받고 있는 유성진 회장



2011년 제1회 이사회 개최



• 2011년 제1회 이사회 전경

2011년 제1회 이사회가 한경보 전임회장과 박구준 전임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11일 개최 되었다.

협회 제2강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개회인사 및 성원보고에 이어 개회선언, 각종보고와 부의안건과 기타 토의사항의 순으로 열렸으며 순조로운 진행으로 폐회되었는데,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영기·장호면 감사의 2010년 감사평

가. 2010년 감사결과 잘된 점

- 1) 경기침체에도 간접경비 절감과 광고비 등의 수익으로 흑자경영을 이룬 점.
- 2) 건설업경기가 불황임에도 수주계약이 증가된 점.
- 3) 경상비 절감과 20년사 발간을 통해 광고수익을 올린 점.

나. 잘못된 점

- 1) 매출실적에 있어 기술지도와 기술교육 부문의 부진.
- 2) 법인감정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기타 주요

업무의 매출이 부진함.

- 3) 매출원가 중 급여가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급여수준이 높지 못함.

다. 종합평가

- 1) 매출액은 목표대비 미달하였으나 수주잔고가 증가되어 고무적이며, 영업손실비용에 있어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향후 수익구조 다변화 및 매출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기타의견

가. 김용경 부회장: 향후에는 이사회 자료를 미리 발송해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의 질적 향상이 요구됨.

3.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신입회원 승인의 건에 의해 확정된 신입회원은 다음과 같다.

- 호종관 기술사: 삼성건설 부장
- 함영종 기술사: 삼성건설 과장
- 최수환 기술사: GS건설 과장

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경보 회장, 박구준·김용경·유길환 부회장, 정영기 감사, 최용화·손진섭·송인철·홍재학·박주경·안무영·안태호·임정희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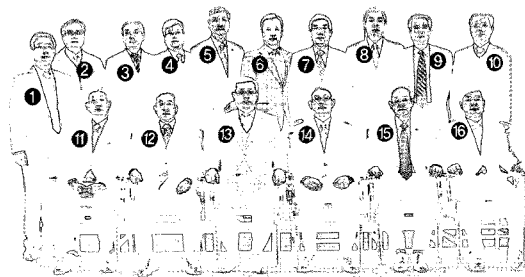
제8대 회장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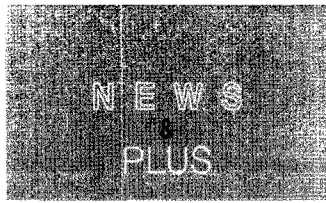
• 3월 7일 공식 출범한 제8대 회장단

향후 3년간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를 이끌어갈 제8대 회장단이 출범했습니다. 우리협회 회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신임 회장단은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안전전문가들로 우리 회원들 모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로 나아가는데 선두에 서신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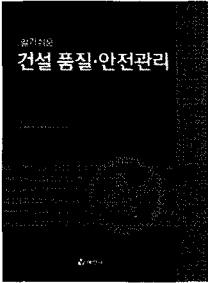
- 회 장: 유성진
- 상근부회장: 안무영
- 비상근부회장: 유길환, 장효성
- 감 사: 김연호, 김종효



- ① 안태호 기획관리이사
- ② 최용화 전문위원
- ③ 정기택 고문
- ④ 최인봉 전문위원
- ⑤ 이운회 이사
- ⑥ 손진섭 이사
- ⑦ 김연호 감사
- ⑧ 주취남 이사
- ⑨ 김종효 감사
- ⑩ 장효성 비상근부회장
- ⑪ 최재천 상임고문
- ⑫ 박구준 전임부회장
- ⑬ 한경보 전임회장
- ⑭ 유성진 회장
- ⑮ 권오석 상임고문
- ⑯ 안무영 부회장



한경보 명예회장과 홍상희 박사, 충주대 류현기 교수 공동집필로 책발간



한경보 명예회장과 홍상희 박사, 충주대 류현기 교수가 건설 분야 학계와 실무를 경험하면서 겪은 건설품질과 안전관리를 집대성한 「건설품질·안전관리」 책을 발간하였다.

「건설품질·안전관리」는 건설 기술자들이 실무현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각종 기술적 내용을 그간 저자들이 최근 4년간 건설안전기술협회와 건설감리협회 등에 기고한 원고를 정리한 것으로 건설업 전분야가 망라되어있으며 기술적 깊이도 충분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저자들은 밝혔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편성된 책의 내용중 콘크리트의

경우 전반적인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안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사례 및 안전관리의 기본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 목차 : 제1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오해 2. 건설현장의 균열관리 3. 레미콘 가수에 따른 품질 결함 4. 거푸집 존치기간 5. 콘크리트 이어붙기 6. 자기수축균열 7. 내한성 혼화제의 특성 8. 매스콘크리트의 품질향상에 관한 시공사례 9.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에 따른 품질 향상 10. 팽창제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특성 11. 분리저항형 유동화제의 활용 12. 레미콘 공장 사전(정기) 점검시 골재점검사항 13. 현장에서 원감절감 방안 14.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종류 15.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파괴시험의 종류 16. 보도용 블록 17. 보도용 블록 세정공법

제93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협회 방문



• 협회를 방문한 제93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들

제93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합격자 일행 7명이 5월2일 협회를 방문해 한경보 명예회장과 협회 현황 및 활동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합격자중 철도시설공단의 오주환 합격자는 건축시공기술사와 토목시공기술사에 이어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기술사 3관왕에 올랐으며 “기술사의 꽃이라고 생각해온 건설안전기술사에 합격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며 선배 건설안전기술사께서 이룩한 훌륭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일열 재일건설대표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대회에 매년 참가해 완주하고 있는 철인으로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합격의 영광을 안아 철인다운 면모를 학구열에서도 성취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경보 명예회장은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난관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광을 안은 합격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안전 업무에 최고의 기술을 전문가로 다시태어 났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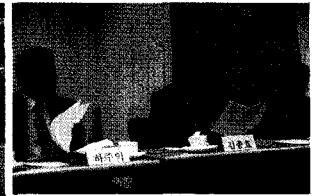
한편, 이날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명관(SIX건설) / 강병택(한신공영)
- 민순홍(대우건설) / 신중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오주환(철도시설공단) / 유일열(재일건설)
- 이현택(SK건설)

2011년 제2회 이사회 개최



• 2011년 제2회 이사회 전경



• 고문추대 요건 및 처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김종호 감사

이 제기되어 고문단을 투표에 의해 결정키로 의결됨에 따라 투표 및 개표의 결과에 따라 선임되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성진 회장, 안무영·장효성 부회장, 김종호·

김연호 감사, 안태호·송인철·최용화·이윤희·손진섭

2011년 제2회 이사회가 유성진 신입회장과 안무영 신입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유성진 회장의 개회인사 및 성원보고로 시작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회 이사회 의사초록 접수 등의 각종보고와 개회 선언과 각종보고, 신입회원 승인, 고문추대 승인, 차량매각 및 매입승인의 건이 의결되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종호 감사에 의해 고문추대 요건 및 처우 등에 대한 의견

● 투표에 의거 선출된 고문단

상임고문 : 권오석, 최재천

비상임고문 : 장광태, 정기택, 이선홍

● 승인된 신입회원

채태희(삼성엔지니어링 부장)

이창윤(삼보기술단 부사장)

김승환(코오롱건설 부장) 이상 3명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세계 전문직업인 인명부 2011년판 수록

법무법인 세창 대표인 김 현 변호사가 세계적인 전문직업인 인명부인 International Who's Who of Professionals 2011년판에 실릴 예정이다. 김 현 대표는 국내 해상법 외국 박사 2호로서 지난 20여년간 해상 전문 변호사로서, 또 10여년 전부터는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를 시작으로 건설 분야에서도 그 명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이래 현재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로 활약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세계 전문직

업인 인명부에 수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 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세창은 매년 발간되는 '아시아 퍼시픽 500대 로펌'에서 해상 및 건설분야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는 등 김 현 변호사의 전문성은 Who's Who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현 변호사는 최근 4년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다.